

Unlikely heroes – 3. Jael – Sermon Notes

Title: Jael – A woman who makes her point

Scripture: Judges 4:11-22

Date preached: April 14th 2024**Scripture: Judges 4:11-22**

11 Now Heber the Kenite, of the children of Hobab the father-in-law of Moses, had separated himself from the Kenites and pitched his tent near the terebinth tree at Zaanaim, which *is* beside Kedesh. 12 And they reported to Sisera that Barak the son of Abinoam had gone up to Mount Tabor. 13 So Sisera gathered together all his chariots, nine hundred chariots of iron,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from Harosheth Hagoyim to the River Kishon.

14 Then Deborah said to Barak, “Up! For this *is* the day in which the LORD has delivered Sisera into your hand. Has not the LORD gone out before you?” So Barak went down from Mount Tabor with ten thousand men following him. 15 And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ll *his* army with the edge of the sword before Barak; and Sisera alighted from *his* chariot and fled away on foot. 16 But Barak pursued the chariots and the army as far as Harosheth Hagoyim, and all the army of Sisera fell by the edge of the sword; not a man was left.

17 However, Sisera had fled away on foot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for *there was* peace between Jabin king of Hazor and the house of Heber the Kenite. 18 And Jael went out to meet Sisera, and said to him, “Turn aside, my lord, turn aside to me; do not fear.” And when he had turned aside with her into the tent, she covered him with a blanket. 19 Then he said to her, “Please give me a little water to drink, for I am thirsty.” So she opened a jug of milk, gave him a drink, and covered him. 20 And he said to her, “Stand at the door of the tent, and if any man comes and inquires of you, and says, ‘Is there any man here?’ you shall say, ‘No.’” 21 Then Jael, Heber’s wife, took a tent peg and took a hammer in her hand, and went softly to him and drove the peg into his temple, and it went down into the ground; for he was fast asleep and weary. So he died. 22 And then, as Barak pursued Sisera, Jael came out to meet him, and said to him, “Come, I will show you the man whom you seek.” And when he went into her *tent*, there lay Sisera, dead with the peg in his temple.

11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겐 사람들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아난님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12 시스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13 900 대의 철전차와 모든 병력을 하로셋 - 하고임에서 기손 강가로 집결시켰다.

14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10,000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왔다. 15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시스라가 자기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16 그러나 바락은 그 전차들과 군대를 하로셋 - 하고임까지 추격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죽였다.

17 한편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하술 왕 야빈과 헤벨의 가족 사이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8 그때 야엘은 시스라를 맞으며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가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하자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로 덮어 주었다. 20 그때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천막 문 앞에서 있다가 누가 와서 찾거든 아무도 없다고 말해 주시오.” 21 시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자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박아 죽였다. 22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왔을 때 야엘은 그를 맞으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래

서 그가 함께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천막 말뚝이 박혀 있었다.

Introduction

Before we look at the story of today's unlikely hero Jael let's spend a few moments reviewing last week's unlikely hero.

Last time we looked at the story of Moses' father-in-law Jethro, or *Yithro* in Hebrew. There may be some who would quibble about his inclusion in a list of heroes. It's certainly true that his “heroic” or “great” act is not comparable to other biblical heroes. He didn't, at least as far as we know participate in epic battles and defeat numerous foes. Nor is he recorded saving people from certain death, or fighting wild animals with his bare hands!

However his acts of kindness, consideration and wise counsel warrant his inclusion as an unlikely, or lesser known hero. Scripture presents him in a favourable way. He is portrayed as a wise, pious and Godly man who held God in awe and reverence. One aspect of his wisdom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he understood that human beings derive strength and support from the people around them. In particular, we need the love and encouragement of our families. When we don't receive this we can feel lonely and isolated. Jethro therefore recognised that Moses would be happier and healthier with his family alongside him. Jethro therefore worked towards family unity. He brought his daughter Zipporah (Moses' wife) and his two grandsons to be with Moses.

He also correctly identified where Moses whilst doing the right thing, was doing it in the wrong way. It was good, and right that Moses felt responsible for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God after all had called him to lead, guide and judge the nation of Israel. However this was just too much work for one eighty year old man. Jethro counselled him wisely, and advised him, after first seeking approval from God to appoint additional helping judges. These lesser judges working under the authority of Moses would take on the less important judicial cases. This would free up Moses, it would allow him to handle just the most serious issues. Jethro, the “efficiency expert” taught Moses an important lesson in managing our priorities and delegation. In this one simple piece of inspired counsel many problems were resolved. I would argue that this alone was a “great” act and hence warrants Jethro's inclusion as an unlikely hero. Today we will look at a very different kind of heroic act. This one certainly took courage and resolve. It's an act that few of us could ever contemplate emulating. Today we will look at the story of Jael. A woman as we shall see who makes her point.

오늘의 예상치 못한 영웅 야엘을 보기 전에 지난 주의 내용을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 히브리어로 *Yithro* 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영웅 목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웅적” 또는 “위대한” 행위가 성경의 다른 영웅들과 비교할 수 없음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장대한 전투에 참여하여 수많은 적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했다는 기록도 없고, 맨손으로 야생 동물과 싸우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함, 배려, 현명한 조언은 그가 예상치 못한 또는 덜 알려진 영웅에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호의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섬겼던 현명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지혜의 한 측면은 인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힘과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것에서 보여집니다. 특히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외롭고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드로는 모세가 그의 가족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는 가족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고 그의 딸 십보라(모세의 아내)와 두 손자를 모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느끼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심판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든 살의 노인에게 과한 일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혜롭게 조언하고,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후에 보조 재판관들을 임명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모세의 권위 아래 일하는 이 하급 재판관들은 덜 중요한 사법 사건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는 자유로워지고 심각한 문제만 처리하면 됩니다. 효율성 전문가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우선순위와 위임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 간단한 영감받은 조언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행위였으며 따라서 이드로가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포함되는 것을 보증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매우 다른 종류의 영웅적 행위를 살펴해보겠습니다. 이 행위는 확실히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우리 중 극소수만이 흉내낼 생각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야엘의 이야기를 살펴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확실히 보여준 여인을 살펴해보겠습니다.

Historic Background and setting

We find ourselves today in the book of Judges known as the *Shophetim* in Hebrew. The book chronicles a fascinating period of Israelite history which lasted for around 300-330 years. This accounts for about 30 percent of the total history of the nation of Israel covered in the Old Testament. In terms of the biblical characters involved it spans a period of time stretching from the death of Joshua until the coronation of Israel's first king Saul.

When Joshua died, God did not appoint a person to succeed him as the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of the entire nation of Israel. This was because each tribe was expected to conquer and occupy their own allotted territory. There was therefore no need to have a national leader in place. Unlike all the surrounding nations Israel would exist without an ongoing succession of kings as national rulers. This of course made the nation of Israel unique. They were expected to live and operate with God ruling over them. We refer to this as a theocracy. God wanted them to place their full and complete trust and faith in Him. How did this play out? Any time spent reading through the book of Judges will highlight that this not how things transpired. The book is mostly a record of abject failure. Throughout the book we see a similar pattern repeated time and time again. It is a four step cycle of sin, servitude, sorrow and salvation.

The cycle begins with the people being faithful to God. This obedience to God is all too soon neglected and the people fall into **sin**. They turn their backs on Him and begin to worship and serve Baal, Ashtaroth or other pagan gods. God punishes this falling away by allowing enemies to come and enslave the nation; **servitude**. The nation of Israel recognises its sin and cries out for God's mercy; **sorrow**. God hears their cry for mercy and sends them a judge to lead them to safety; **salvation**. The people are grateful to God and come back to worship Him accordingly for a time. It is never that long however before the cycle begins again.

히브리어로 쇼페팀(Shophetim)으로 알려진 사사기에 오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약 300-330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 역사의 흥미로운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다루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대관식까지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부족은 그들에게 할당된 영토를 정복하고 점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 국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국가 통치자로서 계승되는 왕들이 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을 신권정치(theocracy)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

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 비참한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은 죄, 예속, 슬픔, 구원의 4 단계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너무나 빨리 잊혀지고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께 등을 돌리고 바알, 아스다롯 또는 다른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와서 그 나라를 종살이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배교를 처벌하십니다; **예속**.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슬픔**.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으로 인도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동안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So who were these judges and what function did they serve?

When times of national crisis arose and the people needed a leader God in His grace would provide one. This person known as a judge would rise up, complete their mission and then fade away into obscurity. When we hear or use the word “judge” today we conjure up a particular image in our minds. We think of someone dressed in black, possibly wearing a funny wig presiding over a courtroom. The Old Testament judges did far more than simply dispense rulings in legal cases. In fact, they seem to have done very little of this. So what function did they serve in Israel? I have read them described as being a mixture of a mayor, a marshal, a prophet, and a general. This description aptly describes their multiple roles. If you desire a simpler way to think of the judges you can simply envisage them as being those sent by God to “save” or “deliver” the people from their enemies.

Why you might wonder were so many judges required? The reason so many judges were needed was that the people were so often beset by their enemies. This was because they had disobeyed God's command to fully conquer the land. Instead of defeating and driving the Canaanites from the land they made covenants or pacts with them. Instead of demolishing the pagan altars they allowed them to remain. This meant that when they turned away from Yahweh these altars could be utilised in their worship of false gods. This should provide us with a sobering lesson today. We must be radical in our attitude towards sin and sinful practices. We fool ourselves and set ourselves up for failure if we foolishly think that light and dark can co-exist at the same time.

The story that we will consider today is that of Jael. She lived at the time when Deborah was the judge of Israel. Deborah is often connected with the military commander Barak. We will look at him later. Let's spend a few minutes looking first at Deborah.

국가적 위기가 닥쳐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 주십니다. **사사(재판관)**는 세워지고 임무를 완수한 다음 무명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검은 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법정을 주관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사들은 단순히 법적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그들이 시장, 보안관, 선지자, 장군이 혼합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설명은 그들의 다양한 역할을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사사를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수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사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적들에게 너무 자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서 몰아내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 제단을 없애지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

섰을 때 이 제단들을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죄와 죄악된 행위에 대해 급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살았습니다. 드보라는 종종 군사령관 바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보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Deborah (whose name means “bee”) was the fourth judge we see emerge in the book of Judges. She is sandwiched between Shamgar and Gideon. We are told that as well as being a judge she was also a prophetess and the wife of Lapidoth. She is unique being the only female judge. She is also in very limited company being a named female prophetess. She joins a list with Miriam (Exodus 15:20), Huldah (2 Kings 22:14; 2 Chronicles 34:22) and Noadiah (Nehemiah 6:14).

She is a very interesting person worthy of study. You can read her story in full in Judges chapters 4 and 5.

As you begin chapter 4 you will note that there is little preamble regarding how Deborah came to be a judge. We are simply told that she was judging Israel at that time. I mentioned in my introduction that the judges did little actual judging of legal cases. However in Deborah's case she did operate as a judge or arbiter between the people. She chose a very interesting place in which to sit and make her rulings. We read that she would sit under a palm tree located somewhere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mountains of Ephraim. The people would come to her and ask for her to rule on their disputes.

드보라(이름은 “벌”을 의미함)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삼갈과 기드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녀는 사사이자 여선지자이며 랍비뚱의 아내였습니다. 유일한 여성 사사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또한 지명된 여선지자로 아주 소수의 그룹에 속하는데 미리암(출애굽기 15:20), 홀다(왕하 22:14; 대하 34:22), 노아디아(느헤미야 6:14)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있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사사들이 법적 사건에 대해 실제적인 재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관이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벤엘 사이 어딘가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와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We should also make a note at this point at what was occurring in the nation of Israel at this time. The people had again fallen away from God and as a punishment God had allowed an oppressor to arise. The earlier oppressions came from outside of Canaan. But now a leader within Canaan was permitted to rise up against the Israelites. This was King Jabin who ruled and reigned from the city of Hazor in northern Galilee. The original city of Hazor located around 10 miles north of the Sea of Galilee had been burnt by fire by Joshua's army almost a century before. However since that time it had been occupied and rebuilt by the Canaanites. It was at the time of Deborah a large and fortified city. Its strategic importance lay in its location on the main road connecting Egypt and Mesopotamia. King Jabin was assisted by his military commander Sisera. The name "Sisera" is not a Canaanite name so scholars speculate that he may have been a Philistine. He along with his forces was based in the town of Harosheth Hagoyim. We are unsure of the exact location of this town or city but it was most likely situated in the western part of Galilee. The people of Israel had lived under the oppression of Jabin and Sisera for 20 difficult years.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압제자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초기의 억압은 가나안 밖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 자는 갈릴리 북부 하술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던 야빈 왕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10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래 도시 하술은 거의 100년 전에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재건하였습니다. 드보라 시대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빈 왕은 그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스라"라는 이름은 가나안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가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그의 군대와 함께 Harosheth Hagoyim 마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갈릴리 서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The reason that the Canaanites were so comfortably able to suppress Israel for so long was because of their awesome military might. They possessed 900 iron chariots. This was precisely 900 more than the Israelites had. The chariot was the most advanced weapon of that day. It was the equivalent of a battle tank today. It gave any army using them a tremendous advantage, especially over an opponent that could not bring their own chariots into the field of battle. On a wide open battle-field in dry conditions the chariot was almost invincible. They were far less effective on hilly, rocky or wooded terrain and in wet conditions. In the wet the horses churned up the ground and the wheels of the chariot could easily get stuck. For an army on foot to have any chance against chariots it was vital to draw them onto unfavourable ground.

We should also consider for a moment the difficulty and expense associated with maintaining such a huge number of chariots. Each chariot was manned by three men. A driver, a shield bearer who provided protection and a spear or bowman. He would be the one tasked with doing most of the offensive work. So in terms of personnel that required a garrison of at least 2700 men. They had to be housed and fed. Then we must consider the horses. Each chariot was pulled by two horses. So there must have been stables that housed at least 1800 horses. There would also need to be extra horses to replace those killed or injured in action. Perhaps a further 200-300 horses might be required.

All of these horses needed to be fed, watered and cared for. Let's not forget the chariots themselves. They would be prone to constant wear and tear. Even if not used in battle they were needed for training and practice. Wheels would break or be damaged. Reigns and straps would wear out. So a team of blacksmiths and workmen would also have been needed. What I'm saying here is that to maintain such a large force required careful organisation, planning and finances.

Still King Jabin considered it to be worth the high cost because they gave him a massive advantage on the battlefield. After 20 years of success he probably thought he had nothing much to fear from the Israelites. How wrong he was. Let's look at what God had planned for Jabin's impressive army.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것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차는 당시 가장 발전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탱크와 동등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군대는 전차가 없는 적들과 싸웠을 때 엄청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건조한 환경의 넓은 전장에서 전차는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언덕이 많고 바위가 많거나 숲이 우거진 지형과 습한 환경에서는 훨씬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땅이 젖으면 말들이 땅을 휘젓고 전차 바퀴가 땅에 박혔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군대가 전차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차를 불리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것처럼 엄청난 수의 전차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전차에는 세 사람이 탑승했습니다. 운전수, 보호를 위한 방패 소지자, 창 또는 궁수. 물론 궁수가 대부분의 공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인력 측면에서는 최소 2700 명의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잘 곳과 음식도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말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각 전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끌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800 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구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말을 대체하려면 최소 200~300 마리의 말들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먹이를 주고, 물도 주고,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차 자체를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됩니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훈련은 해야했습니다. 바퀴가 부러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레인과 스트랩이 마모됩니다. 따라서 대장장이와 일꾼들로 구성된 팀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병력을 유지하려면 세심한 조직, 계획,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빈 왕은 전차들이 전쟁터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성공적인 압제 후에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빈의 대단한 군대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eborah was a prophetess of the Lord. So the message she is imparting to Barak is what God had revealed to her. The message is simple. Barak, her military commander is to recruit 10,000 men from the tribes of Naphtali and Zebulun. He is then to lead this force to Mount Tabor where he will meet and defeat Sisera in battle at the River Kishon. The orders are quite clear. Follow God's plans and you will be successful. How does Barak respond? Sadly not very well. He seems at this time to lack true courage and conviction. He doubts that God will grant him this victory. Given what I have just explained about the power and might of Sisera's chariot army we might understand his reticence. Even a large force of 10,000 foot soldier would be no match for 900 chariots.

But Barak has forgotten one crucial factor. God is on Israel's side. When the God of the universe is at the head of your army you cannot be defeated. Barak insists that he will only go on this mission if accompanied by Deborah. There are several ways we might interpret what he says here. It may demonstrate a high degree of hesitancy or uncertainty. Many read these words and think Barak lacked real faith. Alternatively it may indicate that he recognised a certain power and strength in Deborah. She truly spoke for God. Perhaps he imagined that her talismanic presence would ensure victory. Or maybe he thought it would be easier to recruit men to fight if she was there to encourage and motivate the men. Whatever the case Deborah agrees to go but gives Barak a stark warning. There will be a price to pay for his failure to act as God wanted. The price is that he will be denied the full honour and glory due to one who defeated a strong enemy. Instead, that honour will go to a woman. This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a powerful Israelite warrior to hear. But a woman will indeed get the glory. Most people reading or hearing this would assume this woman would be Deborah. This is not the woman in mind. The woman who would get the glory is the subject of this sermon; Jael. Let's look at her next.

드보라는 여호와와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바락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녀의 군사령관 바락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 명을 모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군대를 다볼 산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시스라를 만나고 기손 강 전투에서 시스라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명령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성공할 것입니다. 바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타깝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당시 그는 진정한 용기와 확신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지 의심합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시스라의 전차 부대의 힘과 세력을 고려하면 그의 용기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병 10,000 명이라는 큰 병력도 전차 900 대를 상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의 전투에 계시면 패배할 수 없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동행해야만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주저함이나 불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고 바락에게 진정한 믿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가 드보라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음을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마법적인 존재가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상상했을 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한다면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드보라는 같이 가기로 동의하지만 바락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 데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가는 강한 적을 물리친 자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명예와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대신 그 영광은 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강력한 이스라엘 전사에게는 이 말이 매우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드보라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얻을 여인 - 야엘 - 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녀를 살펴보겠습니다.

What do we know about Jael? Let's deal firstly with her name. It should properly be pronounced as Ya-el. Her name means "mountain or wild goat," which is perhaps to us today an odd name choice for a daughter. She is mentioned by name in scripture 6 times. Four here in Judges chapter 4 and twice more in Judges chapter 5. We also know that she was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I will talk more on him in a moment. Aside from that we know very little about her.

Let us skip ahead now to the day of the battle. In verse 11 we are introduced to Jael's husband Heber the Kenite. The Kenites were the descendants of Moses' father-in-law Hobab. They had been friends of God's people from the time of Moses and had even settled in the southern, desert region of the Promised Land known as Arad. Heber had broken off from the rest of the Kenites and moved his family north. He settled down near a landmark known as the oak in Zaanannim (Joshua 19:33).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ose side Heber was on, was he pro Israel, pro Canaanite or somewhere in between? It certainly seems to be the case that there had been some form of compromise on the part of Heber. We know this because he was at peace with Jabin. This view was not shared by his wife Jael. She was definitely pro Israel and unlike her husband was no compromiser.

우리는 야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먼저 그녀의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야엘(Ya-el)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이름은 "산 또는 야생 염소"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딸의 이름으로는 이상한 선택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4장에서 네 번, 사사기 5장에서 두 번 더 있습니다. 그녀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그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투 당일로 건너뛰겠습니다. 11 절에서는 야엘의 남편인 겐 사람 헤벨을 소개합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호바브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친구였으며 약속의 땅의 남쪽 사막 지역인 아랏이라고 불리던 곳에 정착했습니다. 헤벨은 나머지 겐 사람들과 떨어져 나와 그의 가족을 북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사아난님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정착했습니다(수 19:33). 헤벨이 누구 편이었는지에 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친가나안, 아니면 그 중간? 야빈과 평화롭게 지냈던 걸로 봐서 확실히 헤벨은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친이스라엘이었고 그녀의 남편과는 달리 결코 타협자가 아니었습니다.

Sisera learns that Barak and his force of 10,000 men have positioned themselves at Mount Tabor. This mountain rising to a height of 588 meters would have given them a great strategic advantage.

They would be able to see the enemy approaching from some distance, and it provided them the benefit of higher ground. It is much more difficult and tiring to attack an enemy on a hill. Despite Barak's advantage Sisera is confident his superior chariot forces will prevail. He gathers all the chariots and all the men he has available and sets off from Harosheth Hagoyim.

When they are seen approaching Deborah gives the command for the army to rise up and prepare for action. This is where we see Barak show true courage and bravery. This is why he is named among the heroes of the faith in Hebrews chapter 11 (Heb 11:32). He led his forces down to face off against the army of Sisera. Let me emphasise that point. He gave up the advantage of higher ground to go down to flat ground that better suited the enemy. Imagine the kind of fortitude this required. To stand virtually unprotected against massed ranks of iron chariots. But Barak at this point in time seems to be trusting that God was really on their side.

In verse 15 we read that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of his army. From Sisera's view-point the battle was a complete disaster. How you might ask was such a thing possible. How could it be that all those state of the art chariots failed so badly? Well obviously the first thing to say is tha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bible is full of God's people achieving improbable victories.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no human might can stand against the sovereign power of the universe. But God may have also intervened in another way. In chapter 5 of Judges we read Deborah and Barak's song of victory. In verses 19 to 21 we read the following.

**19 “The kings came *and* fought,
Then the kings of Canaan fought
In Taanach, by the waters of Megiddo;
They took no spoils of silver.
20 They fought from the heavens;
The stars from their courses fought against Sisera.
21 The torrent of Kishon swept them away,
That ancient torrent, the torrent of Kishon.
O my soul, march on in strength!
(Judges 5:19-21)**

These verses speak of the Kishon River flooding due to a storm accompanied by heavy rainfall. This was divine intervention. As I explained before boggy or muddy ground severely impairs the effectiveness of chariots. So let's imagine the scene. The chariots begin their charge until they reach the sodden ground where the Kishon River has flooded. The hooves of the horses soon churn up the wet ground and the wheels of the chariots become embedded. The chariots are now virtually immobile. All their strategic advantage is lost. Remember of the chariots three occupants only one is a real fighting man. In such a fight lightly armed men on foot have all the advantages. Barak and his men can move between the chariots hacking down the Canaanites as they go. It's a complete rout and Sisera quickly realises this. He abandons his own chariot to escape on foot. Interestingly he ran north-east from the battle site while his remaining soldiers fled back west, the way they had come. They were all pursued and cut down. This was unusual. Normally in ancient battles whilst casualty figures could be high usually some combatants lived to fight again. Not so in this case. All of Sisera's men perished.

시스라는 바락과 그의 군대 10,000 명이 다불 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높이가 588m 인 이 산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략적으로 크게 이롭습니다. 일정 거리에서 다가오는 적을 볼 수 있었고, 더 높은 지대로서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락의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그의 우월한 전차 부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병거와 병력을 모아 하로셋 학고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적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드보라는 군대에게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림

니다. 여기서 바락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 장(히 11:32)에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시스라의 군대와 대결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는 적에게 더 유리한 평지로 내려가고지의 이점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밀집된 철병거 대열에 맞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의 편이심을 믿는 것 같습니다.

15 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꺾어 주신 것을 읽습니다. 시스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전투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최첨단 전차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거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주의 주권자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5 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19-21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 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삿 5:19-21)

이 구절은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인해 기손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늪지나 진흙탕은 전차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그럼 그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전차들은 기손강이 범람해서 젖은 땅에 도달할 때까지 돌격합니다. 곧 말발굽이 젖은 땅을 휘젓고 전차 바퀴가 박혀버립니다. 이 때 전차는 사실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적 이점은 사라집니다. 전차에 탑승한 세 명 중 한 명만이 실제 전투원입니다. 이러한 전투에서는 가볍게 무장한 보병이 훨씬 유리합니다.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전차 사이로 이동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였고 시스라는 이것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보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전차를 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은 병사들이 왔던 길인 서쪽으로 도망치는 동안 시스라는 전장터에서 북동쪽으로 달렸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추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전투에서는 사상자 수가 높았지만 일반적으로 일부 병사들은 살아남아 다시 싸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부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Sisera makes his way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located in Zaananim. Heber as we noted before had some kind of peace arrangement with King Jabin. Sisera thinks he has found a place of refuge and safety. This is reinforced as Jael goes out to meet and welcome him into her tent. She reassures by him telling him he has nothing to fear.

A brief cultural note here before we move on. What Sisera did here was highly irregular. Upon arriving at the camp he should have first gone to Heber the head of the household. To not do this would have been regarded as a very rude and serious slight against Heber. Perhaps he deliberately chose Jael's tent thinking those pursuing him would have been unlikely to search for him in a woman's tent. He also should not have accepted Jael's offer of hospitality. It was highly inappropriate

and any man of integrity at that time would have politely declined such an invitation. The fact that he acted in this unusual way clearly alerted Jael to the fact that something was not quite right. This wasn't a regular social visit.

Once inside he lies down and Jael covers him with a rug or blanket. This is more to conceal him rather than to make him comfortable. As Sisera settles himself to sleep he makes two requests of Jael. Firstly he asks for something to drink. He has come a long way from the scene of the battle. It'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he would be extremely thirsty. Jael gives him some milk. It was probably a kind of yogurt or curdled milk called *leben*. Some have speculated that she chose this drink because it was more likely to make him feel drowsy. A glass of wine tends to perk up the spirits.

No doubt Sisera was thirsty but there may also have been an ulterior motive behind his request for a drink. Ancient middle eastern hospitality included protection for guests. This was enacted when the host shared food or drink. According to social customs, offering a guest food was a solemn vow not to harm them. So was his asking for a drink really a way of trying to ensure her protection?

Secondly he asks that she stand guar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He is exhausted after the battle and flight. He knows that his weariness will soon overwhelm him and he will fall asleep. So whilst he sleeps if anyone comes along and asks about him she is to lie about his presence. Doing this would have greatly endangered her safety. If Deborah or Barak had found out that she had hid an enemy leader they would have punished her accordingly. So Sisera was actually a very rude and inconsiderate guest.

What happens next is both shocking and surprising. It one of those passages that we read and then stop and wonder if we really read it right. Part of its surprise factor comes from the fact that it is the complete opposite of what we might expect. We might expect that Sisera, a brutish warrior would force himself upon Jael. That he would dominate, control or even rape her. Perhaps this was what she feared. But this was not how things played out. She had no intention of letting this enemy of her people rest and then escape. It's also shocking because her methods of dispatching Sisera are so incredibly brutal. Let's pause for a moment to talk about murder. I bet you've never heard a pastor say that in the middle of a sermon.

As I am sure you are aware murders are most often committed by men. I recently read an interesting report on murders in Sweden between 1990 and 2010. The study considered 1570 incidents. The finding showed that 90 percent of Swedish homicides were committed by men. Just 10% of murders were carried out by women. When it came to evaluating the methods murderers chose to kill their victims something interesting emerged. The report revealed that women's murdering habits were very different to mens. Men more often used blunt objects such as hammers, work tools or bats. Men also favoured using firearms if these were available. What about women, what was their preferred weapon of choice? Are you ready? Women it was discovered more often used a sharp object to kill (A Time Trend Study of Swedish Male and Female Homicide Offenders from 1990 to 2010 - Karin Trägårdh et al).

Isn't that interesting? Let's look at what Jael used to kill Sisera.

The object used to kill Sisera was indeed a sharp object, in this case a tent-peg.

시스라는 사아난님에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헤벨은 야빈 왕과 일종의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스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야엘이 그를 그녀의 숙소로 환영할 때 더욱 안심합니다. 그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문화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여기서 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집의 가장인 헤벨에게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헤벨에 대한 매우 무례하고 심각한 경멸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쫓는 자들이 여자의 천막에서는 그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야엘

의 천막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야엘의 환대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은 야엘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회적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눕고 야엘은 그를 담요로 덮습니다. 이는 그를 편안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숨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스라는 잠자리에 들면서 야엘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 그는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싸움터에서 먼 길을 왔으므로 극도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야엘은 그에게 우유를 줍니다. 아마도 요거트나 레벤 *leben*이라는 우유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 음료를 택한 이유가 그것이 그를 졸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와인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분명히 목이 말랐겠지만, 그가 마실 것을 달라는 요청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환대에는 손님 보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이 음식이나 음료를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사회 관습에 따르면,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손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실 것을 청한 것은 정말로 그녀의 보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그녀에게 천막 입구를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싸우고 도망쳐 오느라 무척 지쳤습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로 인해 곧 잠들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와서 그에 대해 묻는다면 그녀는 그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크게 위협해질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적의 지도자를 숨겨준다면 드보라나 바락이 그녀를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스라는 사실 매우 무례하고 배려심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고 나서 정말로 그 부분을 제대로 읽었는지 궁금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잔인한 전사인 시스라가 강압적으로 그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강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런 일들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족의 적을 쉬게 하고 도망치도록 놔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시스라를 제거하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살인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살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해집니다. 저는 최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1570건의 살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살인 사건의 90%가 남성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10%만이 여성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살인자들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살인 방법이 남성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성은 망치, 작업 도구 또는 방망이와 같은 둔한 물체를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가능하면 총기 사용을 선호했습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준비 되었나요? 여성들은 살인을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990년부터 2010년까지 스웨덴 남성 및 여성 살인범에 대한 시간 추세 연구 - Karin Trägårdh 외).

흥미롭지 않나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였는 지 봅시다.

시스라를 죽이는 데 사용된 것은 실제로 날카로운 물건이었는데, 천막 말뚝이었습니다.

The kind of tent peg in view here was a sharp wooden spike about 30 centimetres (12 inches) in length and about 25 millimetres (1 inch) in diameter. Why you might ask did she choose this particular item. Wasn't there something more suitable to hand, a sharp knife for example? Well, Jael knew how to handle a tent-peg because it was customarily the job of women to set up the tents. She

was very familiar with how to properly hold, hit and drive them into the ground.

As soon as Sisera has fallen asleep, Jael sneaks up to him with a tent peg and a wooden hammer. She finds the perfect place to pierce the man's head. This was probably the soft spot on the side of the skull between the eye, ear, and forehead. She then hammers the spike through the general's skull and into the ground below. It's unlikely that she had the strength to do this with one single blow. As horrible as it sounds she probably had to hit the peg several times. As one commentary I looked at neatly put it, Sisera died of a splitting headache! As brutal as all that sounds it was probably a very quick death.

The episode concludes with the arrival of Barak. He has been hotly pursuing the enemy. As he approaches the encampment Jael goes out to meet him. She beckons him to come and she will show him the man he seeks. He's lying in the tent “nailed” to the ground through the head. I'm sure it slightly shocked Barak who had probably seen his fair share of death. We should not overlook the irony and humour here. Barak a mighty warrior leader is being told to “go” (by Deborah) and “come” (by Jael). No doubt he was usually the one giving the orders. Furthermore as Deborah had predicted he will not get the honour and glory of capturing or killing the enemy leader. That honour will go to a humble “housewife.”

Following this God enabled the people of Israel to subdue King Jabin to the point where he no longer posed a threat to their well-being. This process may have taken several years. Interestingly this is the last record in scripture of the Canaanites oppressing Israel militarily. However their religious practices would continue to ensnare God's people from time to time.

And so we come to the conclusion of our account of Jael. A woman who appears briefly in just two chapters of the bible. A woman that in truth we know very little about. Aside from this one act of brutal courage she remains a figure shrouded in mystery. Despite this we can look at what scripture tells us and learn some valuable lessons. Let's consider what we can learn from our unlikely hero Jael.

여기서 사용된 천막 말뚝은 길이 약 30 센티미터(12 인치), 직경 약 25 밀리미터(1 인치)의 날카로운 나무 못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도구를 선택했을까요? 예를 들어 날카로운 칼처럼 손에 더 적합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천막을 치는 것이 관례적으로 여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야엘은 천막 말뚝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 잡고, 때리고, 땅에 박는 방법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시스라가 잠들자마자 야엘은 천막 말뚝과 나무 망치를 들고 그에게 몰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를 뚫을 완벽한 곳을 찾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눈, 귀, 이마 사이 두개골 측면의 부드러운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군의 두개골을 뚫고 땅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녀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이것을 해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그녀는 아마도 여러 번 말뚝을 쳐야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한 주석은 이에 대해 시스라는 머리가 쪼개지는 두통 **splitting headache** 으로 죽었다 라고 깔끔하게 표현했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매우 빠른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에피소드는 바락의 도착으로 끝납니다. 그는 적을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그가 진영에 접근하자 야엘은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그가 찾는 자를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시스라의 머리가 땅에 ‘못박힌’ 채 텐트 안에 누워 있습니다. 많은 죽음을 목격한 바락도 그의 죽음에 약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와 유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전사 지도자인 바락은 “가라”(드보라에 의해) 그리고 “와라”(야엘에 의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보통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그는 적의 지도자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명예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평범한 “주부”에게 돌아갑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빈 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억압했다는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울무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야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성경의 단 두 장에만 잠깐 등장하는 여인.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여인. 이 대담한 용기를 제외하면 그녀는 미스터리애 싸인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웅 야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I have four lessons that we can learn from the life of Jael.

야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Lessons to learn

1 Seizing opportunities

As Jael went about her daily chores in and around the nomad camp on that fateful day she could hardly have been anticipating what would happen. How could she possibly have guessed that the most bitter enemy of her people would come literally knocking at her tent door to ask for help. I bet she could hardly believe it. What an opportunity she was afforded. How easily it might have been spurned or wasted. Jael however showed great composure and calmness. She didn't panic or overact. Such a reaction might have startled Sisera and caused him to leave. She carefully and deliberately lulled him into a sense of safety.

What an important lesson this is for us today. God grants us many opportunities to do a variety of things. He manoeuvres people into your life who need to hear the gospel. At other times He brings people into your orbit who need wise Christian counsel or wisdom. Depending on your skills or abilities He might provide a place for you to teach or speak, or a missionary opportunity. How are we to respond when such opportunities occur?

Hopefully just like Jael we respond with composure and calmness. Sadly I doubt this is often the case. Isn't the truth that we too often let precious opportunities slip away. We could speak to that friend, colleague or family member and share the gospel but, we don't feel ready, we are too shy, too tired or too busy. The opportunity is lost. So let's pray for boldness and courage when an opportunity arises.

야엘은 그 운명적인 날 유목민 캠프 안팎에서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면서 그 날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가장 냉혹한 적이 문자 그대로 그녀의 텐트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보고도 거의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쉽게 놓쳐버릴 수도 있는 기회였지만 야엘은 평정심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시스라는 놀라서 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그를 안심하도록 달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조언이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의 주변으로 데려오십니다. 여러분의 기술이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말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야엘처럼 우리도 평정심과 침착함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친구, 동료, 가족에게 이야기 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너무 수줍음이 많고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바쁩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생겼을 때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2 Not being fearful about getting our hands dirty

One of the many criticisms levelled against the British military command during the first world war was that they were too distant from the action. Whilst the troops suffered the horrors of the trenches the majors and generals lived comfortably in nice accommodation many miles behind the front lines. They lost the respect of the common soldiers because they were not willing to get their hands dirty.

When Sisera turned up at her tent Jael had to decide what to do. She could have run and told her husband Heber or another male relative or tribe member. However given the agreement that existed they might have allowed Sisera to go free. Therefore Jael really had no choice. She had to literally get her hands bloody. Naturally this was most unpleasant but this act ultimately broke the dominance of the Canaanites and led her people to be free of their oppression.

I may have said to you before that Christianity isn't a spectator sport. It's not something we can sit back and watch from afar. We are expected as servants to work for the Kingdom. God expects that we get our hands dirty for Him. Some Christians today may be fearful. If you live in a place where you face persecution I can understand that fear. But certainly here in Korea and in the western world too many Christians I am afraid are lazy and uncommitted. Getting your hands dirty whether that means volunteering at church, helping the poor and homeless or going on missions seems like too much hard work. Let us all pray that we will not be afraid to get our hands dirty when necessary.

제 1 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 사령부에 대해 제기된 많은 비판 중 하나는 그들이 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참호에서 공포를 겪는 동안 소령과 장군은 전선에서 수 마일 떨어진 안락한 숙소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직접 전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시스라가 천막에 나타났을 때 야엘은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남편 헤벨이나 다른 남자 친척 또는 부족민에게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종의 평화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를 풀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엘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그들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독교는 지켜보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멀리서 지켜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국을 위해 종으로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손을 더럽히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박해를 받는 곳에 산다면 저는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한국과 서구 세계에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원 봉사를 하든, 가난한 사람과 노숙자를 돕든, 선교 활동을 하든 손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3 Using the tools and skills we have been given

As we saw in our story today when it came time to do her “work” Jael reached for a tool. The tool she deliberately reached for was a tent peg. This was because it was her job to set up and take down the tents. She had a skill in setting and driving home the spikes that kept the tent erect. So in other words she used what she knew and was comfortable in using. She used the resources given to her in

this situation by God. She didn't waste a moment thinking, "If only I had a sword." She simply took up the tools at hand and did what was being asked of her.

God equips His people for the work He puts in front of them. He gives us certain skills and gifts for a reason, and we should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ways to use them.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야엘은 자신의 "일"을 할 시간이 되자 도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취한 도구는 텐트 말뚝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철거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텐트가 똑바로 서있도록 하는 대못을 정확하게 다루고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잘 다룰 줄 아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구를 손에 쥐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이유가 있어서 특정한 기술과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4 Knowing that obeying God may require breaking conventions or cultural norms

The rules surrounding hospitality in the ancient world were incredibly important. A guest that you invited to eat with you was supposed to be under your safe protection. Many at that time would have regarded what Jael did as a major act of treachery. Murdering a guest was unthinkable. We should remember however that this was a time of war. This means that the regular way of behaving was temporarily suspended. We also should also remember that Jael acted on behalf of her people. She broke the cultural conventions of her day for a very good reason.

It's a lesson that we should learn from today. There may be many occasions when obeying God requires us to break conventions or other cultural norms. In Korea that might mean refusing to take part in after work drinking sessions. Standing firm against the pressure to join in ancestor worship. Or just not going along with the ungodly thinking or practices of today. To do this is not always easy. We may face anger and hostility for standing firm. If we do we should remember that obeying God and living lives that please Him should always be our primary concern.

고대 세계에서는 환대와 관련된 규범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식사하려고 초대하신 손님은 당신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야엘이 행한 일을 중대한 배신 행위로 여겼을 것입니다. 손님을 살해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동 방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야엘이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아주 온당한 이유로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관습이나 기타 문화적 규범을 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후 음주 회식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조상 숭배에 참여하라는 압력에 굳건히 맞서는 거나 아니면 오늘날의 불경건한 생각이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확고한 태도로 인해 분노와 적대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항상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